

훈련·팬사인회·연탄배달·모금활동 광주 FC “겨울이 더 바빠”

광주 FC가 분주한 겨울을 나고 있다. 창단 첫해를 성공적으로 보낸 광주 FC는 지난달 21일부터 광주에서 마무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해를 정리하는 자리지만, 월·수·금에는 오전·오후 두 차례 훈련이 전개되는 등 광주의 마무리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훈련 스케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 스케줄도 소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선수단은 신세계 백화점에서 팬 사인회 행사를 열고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올 시즌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500여명의 팬이 몰려 들면서 성황을 이뤘다.

13일에는 사랑의 연탄배달을 위해 앞치마를 둘렀다. 이승기·김동섭·박기동·김은선·

이한샘 등 15명의 선수는 최만희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강운태 구단주와 함께 광주어린이재단이 추천한 양동 조순가정과 대리양육위탁 가정에 각각 연탄 200장과 250장을 배달했다.

강도높은 마무리 훈련

지역민과 함께 이벤트

“힘들지만 보람된 시간”

선수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선수들과 연탄배달에 동참한 김정수 코치는 “급하고 합숙시절에 연탄불을 땀던 기억이 난다”며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과 함께 해서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월드컵대표팀 합류와 K리그 시상식 참여 등으로 누구보다 분주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신인왕 이승기도 “이번 겨울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기분이 좋다.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느라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연탄배달 행사는 오는 17일 KBS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 방송되며, 이날 선수단은 유스퀘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기부·모금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13일 오전 연탄배달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광주 선수단은 오후에는 가볍게 몸을 풀면서 마무리 훈련을 이어갔다.

14일에는 영광으로 자리를 옮겨 광주대와 연습경기를 갖는 등 마무리 훈련이 끝나는 17일까지 광주의 분주한 발놀림은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축구 대표팀 감독 외국인에 무게”

황보관 기술위원장 “한국 정서 잘 이해하는 분 영입 검토”

대한축구협회가 후임 대표팀 사령탑으로 외국인 감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황보관 협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광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기술위원회를 마친 뒤 새 감독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위원장은 “국내의 감독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좀 더 검토하고 선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전력을 극대화하고 팀을 장악해야 하며 한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보 감독은 “국가대표팀을 맡은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한국 선수들이 정말로 잘 따를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한국 정서를 잘 이해하는

감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새로 선임된 기술위원들이 처음으로 회의를 연 까닭에 이날은 새 감독의 기준을 설정했을 뿐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황보 위원장은 내년 2월 쿠웨이트와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최종전, 최종예선, 월드컵 본선 등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감독과 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내년 2월 쿠웨이트와의 예선 경기를 위한 원포인트 감독이나 예선만 지휘하는 감독이 선임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독 선임 과정은 기술위원장이 후보들과 접촉해 기술위원들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다음 기술위원회에서 후보군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방

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까닭에 독립성이 없다는 논란에 휘말린 기술위원회가 여전히 협회 수뇌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요식적인 회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황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기술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언론이 기술위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 정관에는 대표팀 감독의 선임은 기술위원회가 추천한다고 명기돼 있으니 기술위원들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기술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황보 위원장은 연내에 기술위원회를 열어 새 사령탑의 후보를 구체화하거나 추천할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랑의 연탄배달’에 나선 광주 FC 선수단 13일 오전 서구 양동의 한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최만희 감독·박병모 단장·신인왕 이승기·강운태 구단주.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차듀우’ 셀틱 유로파리그 32강 고비

16일 우디네세 꺾어야

차두리와 기성용이 뛰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셀틱이 16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리그 32강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셀틱은 이날 오전 5시5분(한국시간) 이탈리아 프리올리 스타디움에서 세리에A 클럽인 우디네세와 원정 경기로 UEFA 조별리그 1조 최종전을 벌인다.

1승2무2패(승점 5점)로 조 3위에 올라 있는 셀틱은 2위 우디네세(2승2무1패·승점 8점)를 반드시 꺾어야 32강전에 나갈 수 있다. 지난 9월 우디네세와의 1차전에서 셀틱은 기성용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43분 동점 페널티킥 골을 허

용해 무승부를 기록했다.

골 득실에서 우디네세와 동률(-1)을 이루는 셀틱은 이번 경기에서 이기거나 2점 이상을 득점하고 비기면 32강 토너먼트에 직행한다. 하지만 홈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한 셀틱이 무득점으로 비거나 지면 승자승 원칙과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우디네세가 32강에 오른다. 1-1로 비기면 승부차기를 하게 된다.

차두리는 올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4경기를 풀타임 뛰었다. 기성용은 FC 시옹(스위스)과의 플레이오프까지 총 6경기에 출장하고 우디네세와의 1차전에서 득점까지 올렸다.

이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치러지고 나면 32강에 오르는 12개조의 1·2위 24팀이 결정된다. /연합뉴스

프로골프대상 시상식 ‘주인 없는 잔치’

김경태·홍순상·존허

줄줄이 해외대회 참가

한국프로골프협회가 1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하는 올해의 발렌타인 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이 썰렁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는 올 시즌 국내외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우수 선수에게 상을 주는 자리다.

하지만 올해 발렌타인 대상, 상금왕, 신인왕 수상자들이 해외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해 주인공이 없는 가운데 시상식이 치러지게 됐다.

상금왕에 오른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는 15일부터 나흘간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투어 태국골프 챔피언십에 출전하느라 시상식에 나가지 못한다.

대상 수상자인 홍순상(30·SK텔레콤)도 10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시작된 유럽프로골프투어 캘리파잉스쿨에 출전 중이어서 시상식 참가가 어렵다.

신인상을 받게 된 재미교포 존허(21)는 최근 미국프로골프투어(PGA) 투어 캘리파잉스쿨에 합류한 뒤 미국에 머물고 있다.

일본프로골프투어 상금왕에 올라 해외부문 특별상을 받는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과 최지타 수상·장타상 수상자로 결정된 김대현(23·하이트)이 그나마 시상식에 참가하기로 해 협회 측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연합뉴스

고흥의 새로운 랜드마크

거금대교 개통 및 김일 기념체육관 개관



거금대교 개통식
 -일 시: 2011. 12. 16(금) 11:00
 -장 소: 금산면 거금대교 생태공원

김일 기념체육관 개관식
 -일 시: 2011. 12. 17(토) 13:00
 -장 소: 금산면 김일기념체육관

**세계대회개최
 세계 프로레슬링 대회**
 출 전: 이왕표, 노지심,
 세계 유명 프로레슬러 등

